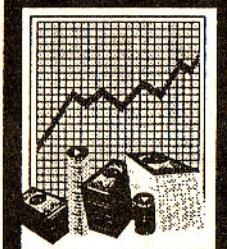


經濟人 手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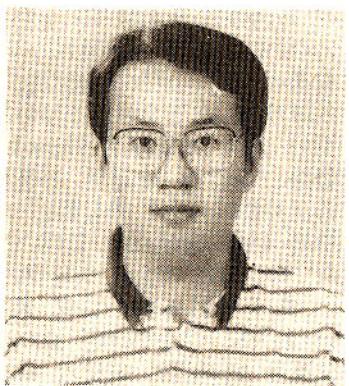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Ⅱ)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김영수 (경제학박사)

첫 번째 환영객:
영어문제

당연히, 위에서 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은 상대가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면, 병신같이 희죽웃거나 팬시리 '화'를 내거나 이상하게 빼끼거나 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상대에게 여간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 보통 우습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친구중에 人類學을 전공하신 영화감독이 있는데, 이분의 박사학위 作品이 '흑인이 한국인 가게에 들어오면 한국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의 클립핑을 모아서 만든 영화'였다. 거기서 보면, 흑인들이 화가나기도 생겼다. 한국 가게의 주인들 중에는 돈을 받을 때 그 간단한 '탱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게 드문드문 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흑인들의 그 간단한 질문들에도 아무런 대답을 (안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주 아



주 간단한 인사말도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무슨 역사적 근거가 있는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흑인에 대한 이상한 우월의식은 터질 듯이 팽배하여 있어서, 흑인고객이 인사말을 던질 때도,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말로 요상한 상욱을 하면서 상대편이 확실히 눈치채게 모욕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들의 경제적 성공을 흑인들이 시기하면서...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LA 폭동의 이유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자기들 편하게 제멋대로 생각해낸 웃기지도 않은 이유이다. 젠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 어디 한국사람뿐인가?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만 심하게 주어 터졌으면, 한국사람만의 유별난 이유가 있는 것이지... 하긴, 이렇게 약간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곧장 反民族의이라는 지탄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야기를 더 이상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필자가 알량하나마 황소 눈알같은 필자의 명예를 걸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인데, 흑인에게 가게가 작살난 것도 사실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사태 직후에도 미국사람들에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을 똑똑히 받아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소위 성금추태를 벌이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말이 즉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와싱턴의 아메리칸대학의 통계결과를 보아도 한국인과 월남사람들이 北美에서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다. 월남사람들이야 총질하고 돌아다니니까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하더라도, 순동이 우리나라사람들이 미움받는 것은 순전히 이 짚은 영어때문이다. 이 넓은 천지를 岩尺에 두고 그 큰 시장을 당당하게 휘저으

면서 꽉꽉 시원시하게 공략할 생각은 업두도 내지 않으면서 좌디 작은 韓人 사회라는 정말로 작은 商團을 놓고 가게들이 또 교회들이 피가튀게 경쟁하고, 원수가 지는 것도 사실은 말이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휴! 이 원수같은 놈의 영어. 중학교때부터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까지 따라왔네!

대학시험치고 나면서 이제는 해방되었나 싶었더니, 이 영어라는 놈은 정말 끈데지게 달라붙어 우리 한민족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다. 정말, 필자도 영어 생각만하면 속이 뒤집힌다.

사실 따지고 보자.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줄 사람이 쓰는 말을 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強盜질 밖에 할 일이 별로 없다. 아니, 말을 잘 못하면 강도질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역시 말을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돈벌이는 소매치기 밖에 없는듯하다. (돈벌이로서의 강도질이나 소매치기에 관해서는 전전번 주의 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벌이라는 과정도 따지고 보면, 말로서 살살 달래는 과정이 99%이다. 상대의 돈을 빼앗을려는데, 그것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바로 그 고래심줄 같은 돈을 빼앗으려는데, 그 돈을 지키는 사람의 말 즉, 英語를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 돈을 빼앗을려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공과 그 要因을 조사를 하여보면 영어능력과 경제적

성공이 언제나 完全 正比例하고 있음은 미국 카나다 어디서나 정부기관에서 조사를 하기만 하면 할 때마다 확실하게 들어나는 현상이다. 거참! 영어 못하는 필자나 필자와 사정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 한국이민자 들에게는 정말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도대체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成長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침묵의 문화에서 커왔다. 묵묵히 가만 있다 자리를 떠나면서 짧잖게 한마디 짧게 멋있게 딘지고 가면 그것이 품나고 헛트치는 그런 '침묵'적 문화분위기 아래 커온 것이다. 당연히 對話의 기술이나 雄辯기술이나 修辭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당연히 真理發掘의 가장 효율적인 方法인 討論이라는儀式을 경건하게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다. 당연히 토론의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다. 누구던지 '본인이 참고 그냥 넘어갈려다 모처럼 한 그 금싸라기 같은 한마디'에 감히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 그놈은 바로 건방진 놈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질문만해도 '건방진 놈'이 되는 판에야, 감히 '반대'라도 했다간 九族이 碎地에 滅門을 당할지도 모른다. 정말 이런 분위기하에서는 沈默은 금 중에서도 완전 24k 極上純金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대표 682-8686-